

다음 글 (가)의 어린왕자의 내용과 글 (나) 김춘수의 꽃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
토론해서 적어보자.

(가)

"내가 아는 어떤 별에는 시벨건 신사 한 사람이 있어요.
그이는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 본 적이 없어요.
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요.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.
덧셈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
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'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.
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.' 라고 되풀이하고 있어요.
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오만해 있어요.
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. 버섯이야!"
"뭐라고?"
"버섯이라고요!"

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.

"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.
하지만 양들이 꽃들을 먹은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예요.
꽃들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가시를
왜 그토록 애를 써서 만드는지 알아보는 게 그래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요?
양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?
그것이 얼굴 빨간 동보 신사의 덧셈보다 더 크고 중요하지 않다고요?
내 별을 빼놓으면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,
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내가 알고 있고,
조그만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단순히 그 꽃을 먹어 버릴지도 모르는데,
그래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?"

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했다.

"수백 수천만의 별 중에 단 한군데밖에 없는 꽃을 누군가 사랑한다고 해봐요.
그럼 그 사람은 별을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히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.
'내 꽃이 저기 어디에 있겠지..'라고 생각하며 말이에요.
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 버리면, 그에게는 대번에 모든 별들이
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!
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요!"

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. 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.
이미 밤이었다. 나는 연장들을 내팽개쳤다.
망치니 볼트니 갈증이니 죽을 따위가 다 시들해졌다.
어떤 별, 우리 별인 지구 위에는 내가 달래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!
나는 그를 껴안았다.

(나)

꽃

김춘수

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

그는 다만

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

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

그는 나에게로 와서

꽃이 되었다.

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

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

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.

그에게로 가서 나도

그의 꽃이 되고 싶다.

우리들은 모두

무엇 이 되고 싶다.

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

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.

다음 글 (가)의 어린왕자의 내용과 글 (나) 김춘수의 꽃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.

1. 김춘수의 꽃에서 “이름을 불러주는”의 의미가 무엇인지 쓰시오.
2. “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내가 알고 있고”, “수백 수천만의 별 중에 단 한군데밖에 없는 꽃을 누군가 사랑한다”의 의미가 무엇인지 쓰시오.
3. “이름을 불러주는 행동”과 “꽃의 향기를 맡는 행동”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.